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대한민국은 지금 '썸 타는 중'



정기고



'씨스타' 소유

'썸 타다'는

영어 '썸싱'(Something)과 한글 '타다'를 합성한 신조어

연인이 되기 전 애매한 상황

'썸' 코드 활용 가요·방송 등 대중 호응...현실 반영 분석도

몇 년 전부터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던 신조어 '썸 타다'가 대중문화계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노래, 방송, 광고, 만화 등 전방에서 '썸'을 키워드로 한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썸 타다'는 '썸싱'(Something)과 '타다'란 영어와 한글을 합성한 신조어로 호감 있는 상대와 연인이 되기 전 핑크빛 감정을 주고 받는 걸 뜻한다. 우정인지 애정인지 애매하게 밀고 당기는 관계다. 이 단어는 유행어처럼 확산돼 이전 남녀 관계를 아울러 '썸 타다'라고 표현해도 통용될 정도다. <노래 '썸' 40여 일간 음원차트 1위>개그 프로 '윌튼도 인기' 이 흐름의 중심에 선 대표적인 콘텐츠는 씨스타의 소유와 심어송라이터 정기고가 듀엣한 히트곡 '썸'이다. '썸'은 지난달 7일 발표돼 10개 음원차트 1위를 석권했고 지난

22일까지 40여 일간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차트 정상을 지켰다. 그 사이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곡인 '벋잇고' 열풍과 소녀시대, 투애니원, 임창정 등 대형 가수들의 신곡 발표가 있었지만 잠시 2~3위로 내려앉더니 바로 1위를 꿰찼다. 이 곡은 '썸 타는' 사이를 주제로 한 가사가 젊은 층을 사로잡았다. 뒤를 이어 나온 케이윌과 신인 걸그룹 마마무가 부른 '썸남썸녀'도 음원차트 상위권에서 사랑받았다. tvN '코미디 빅리그'의 인기 코너 '썸&썸'은 '썸'을 타는 커플과 '썸(싸움)'을 일삼는 커플의 상반된 모습으로 웃음을 줬다. '코미디 빅리그'는 매회 1위를 뺏고 분기별 우승자를 선정하는데 이 코너가 올해 1분기 우승을 해 3천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연말뉴스

EBS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EBS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time slot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 schedu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horoscope predictions for different zodiac signs.

주말 극장가 휩쓴 '노아'의 흥수...예매율 압도적 1위

2위 우아한 거짓말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야심 차게 만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노아'가 압도적인 예매 점유율을 보이며 주말 극장가 접수에 나섰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노아'는 64.3%의 점유율로 지난주 박스오피스 1위 '우아한 거짓말'(11.5%)의 점유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달리고 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5.6%의 점유율로 3위를, 2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리암 니슨 주연의 '논스톱'은 2.3%의 점유율로 4위를 차지했다. 할리우드 영화 '300 제국의 부활'은 '논스톱'과 간발의 차이로 5위(2.3%)다. 이민기·김고은 주연의 스틸러 '몬스터'는

2.1%의 점유율로 6위를 차지했고, 이승환 감독이 연출한 '두 아내'는 1.9%의 점유율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오는 26일 개봉하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1.2%), 아카데미 작품상의 '노에 12년'(1.2%), 소년과 개의 우정을 담은 '벨과 세바스찬'(0.9%)이 10위 안에 들었다. 이번 주 개봉작은 '노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프라이버시' '더 파크랜드' '트리쉬나' '러브 인 비즈니스 클래스' '오빠가 돌아왔다' '고스톱 살인' '존 라베: 난징 대학살' '영웅: 천하의 시작' '피카소: 명작스캔들' '사랑이 필요할 때' '스콜피온 인 러브' '스티븐 킹의 걸' '모도리강' '나, 피에르 리비에르' '하이로드 포 세일' '시티 걸' '플랑드르의 사육제' '피카영웅 경찰차 프로드 2' '벨과 세바스찬' 등 21편에 달한다. <연말뉴스



TV 하이라이트

꿈과 열정이 담긴 애니메이션 세계



다큐프라임(EBS·밤 9시50분)=윌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는 공개하는 작품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애니메이션계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다. 인간의 움직임보다 더 정교한 3D로 우리를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애니메이션 최대 강국,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어떤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화가 있기에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 미국 애니메이션은 거대 자본과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미국 애니메이션의 대중적 성공 배경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끝없는 연구, 열정이 있다.

지리산 민박집 열혈농부 김석봉씨



인간극장(KBS1·오전 7시50분)=시인이었고, 교도관이었으며, 열혈 환경운동가였던 남자가 모든 걸 내려놓고 지리산 산골 마을에 들어왔다. 경남 함양에서 농사를 짓고,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며 사는 열혈 농부 김석봉(58)씨와 요리 고수 아내 정노숙(55)씨. 석봉씨가 직접 손 본 60년 된 흙집에서 노숙씨가 직접 만든 맛갈 나는 자연 요리를 내놓으며, 집을 찾는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어떤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화가 있기에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 미국 애니메이션은 거대 자본과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미국 애니메이션의 대중적 성공 배경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끝없는 연구, 열정이 있다.

트트어왕 최진희 성공과 눈물



그때 그 사람(채널A·오후 8시30분)='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80년대 전국민을 사랑의 미로에 빠뜨린 가수 최진희. 17살에 가요계에 발을 들인 그녀는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아버지에 힘입어 가수의 길을 걷게 된다. 10여 년간의 힘든 무명의 시절을 겪던 그녀는 김희갑 악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최진희 인생에 꽃이 피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후 '사랑의 미로', '돌보라'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그녀가 트트어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한다. 몇 년간 TV에서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최진희, 최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녀를 만나 5년 만의 앨범 준비와 콘서트 준비 등 전성기를 노려와 가수로서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본다.